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Depression and Anxiety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정윤주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Associate Professor : Yun Joo Chyung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References
III. 연구결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two dimensions of children's perfectionism (both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and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2) whether or not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and (3) whether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e participants were 406 fifth and sixth graders. Their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re a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It was also found that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children's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enhancing healthy self-esteem could lower the risks of experienc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with perfectionistic personality.

주제어(Key Words) :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자아존중감(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Yun 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12-1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Tel: +82-32-835-8251 E-mail: ychjung@incheon.ac.kr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완벽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나타내며 비판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을 일컫는다(Hewitt & Flett, 1991). 이러한 성격 특성은 성취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좌절하기 쉽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 발생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Egan, Wade, & Shafran, 2011; O'Connor, O'Connor, & Marshall, 2007)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완벽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과 불안인데 성인에서는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성인의 경우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으나(Hong et al., 2005)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이 시기의 정서적 문제는 유병율이 상당히 높다. 2005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2,672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신장애 유병율 조사(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2005)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약 25%가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한 바에 따라 산출된 우울증상 유병률은 7.4%로서 상당수의 한국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는 일생 동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게 되면 당장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기 및 그 이후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Mazza et al., 2008; Rao et al., 1995). 따라서 아동기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지닌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특히 학업에 있어서 항상 현재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취수준을 높여야 하며 또래집단에서 상위에 있어야 하고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여야 한다는 가정과 사회의 완벽주의적 압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Lee, 2011; Shin, 2011). 따라서 이들의 우울, 불안 관련 요인으로서 완벽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우울, 불안 관련요인으로서 완벽주의가 이러한 심리적 문

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완벽주의를 개념화 하는 관점은 크게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벽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보는 관점은 완벽주의가 본질적으로 역기능적인 성향이라고 가정한다. 이와는 달리 다차원으로 개념화 하는 관점은 완벽주의를 개인적 측면과 대인적 측면을 지닌 것으로 보거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지닌 복합 개념으로 규정한다(Flett & Hewitt, 2002).

완벽주의는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지닌 내담자들에게서 빈번히 발견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된 개념이므로(Kim & Seo, 2008) 초기에는 부적응적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Hamachek, 1978)가 있는 후에 완벽주의에 어떠한 차원들이 있으며, 서로 다른 차원들은 심리적 부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완벽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단일 차원 개념보다는 다차원 개념이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과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모델과 척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완벽주의가 사회부과, 자기지향, 타인지향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 한 Hewitt과 Flett(1991)의 모델과 척도는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이 모델에서 설정한 세 차원이 각각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다차원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게 되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기대한다는 믿음이며,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처럼 높은 기대에 부응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말한다(Campbell & Di Paula, 2002).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신에 대한 지각과 감정이 좌우되기 쉽다고 한다(Tangney, 2002).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뒷받침하듯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또는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Kil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Lee & Rhyu, 2002; Shafran & Mansell, 2001)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에게 매

우 엄격하고 비판적인 성향을 말한다(Campbell & Di Paula, 2002).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또는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정적인 관계가 있거나(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nal, 2005),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Kim & Son, 2006),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Aldea & Rice, 2006)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가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자가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기준 설정과 지나친 자기 비판 등 부적응적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성실성, 성취동기, 자기절제, 책임감 등의 적응적 성향도 동시에 띠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Bieling, Israeli, & Antony, 2004; Cox, Enns, & Clara, 2002; Hill, McIntire, & Bacharach, 1997).

한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며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향으로서 완벽해야 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타인이다(Flett & Hewitt, 2002). 따라서 자아와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이나 불안 보다는 완벽할 것을 요구 받으며 비판 받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ewitt & Flett, 2002).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의 관련 요인으로 완벽주의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Hewitt과 Flett(1991)의 완벽주의 세 차원 중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제외하고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완벽주의는 대체로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는데(Hewitt et al., 2002; Shafran & Mansell, 2001)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완벽주의가 심리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 또는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자신을 가지 있게 여기는 것으로 정의되는 자아존중감(Rosenberg, 1979)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Ashby & Rice, 2002; Rice, Ashby, & Slaney, 1998).

그런데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앞서 고찰했던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의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므로(Bieling et al., 2004; Cox et al., 200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부적응적 측면이 더 강한 경우라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Hewitt & Flett, 2002) 높은 성취동기에 의해 책임감 있게 과제를 완수하고자 노력하는 적응적 측면이 더 강한 경우라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Ashby & Rice, 2002).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러한 기대나 요구를 충족할 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믿는 특성과 타인에게 인정 받으려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 특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witt & Flett, 2002). 이처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mpbell & Di Paula, 2002). 이처럼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과 각각 다른 형태의 관계를 보일 수 있으며, 양면성이 있는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과도 관계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동적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ek & Hwang, 2006; Bos, Huijding, Muris, Vogel, & Biesheuvel, 2010),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추후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Courtney, Gamboz, & Johnson, 2008). 또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보고되기도 했다(Sim, 1998).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 관련 요인들이 우울 및 불안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미 있는 매개변수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Lee, Chung, & Rhee, 2009)이나 또래로부터의 불인정에 민감한 아동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Kim & Park, 2010),

애착이 불안정한 아동청소년의 우울,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Lee & Hankin, 2009)은 관련 요인이 우울, 불안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했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Kim, 2010; Kim & Son, 2006; Park, Heppner, & Lee, 2010)은 자아존중감이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자아효능감도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인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Choi, Yoo, & Hyun, 2005)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생 이상의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심리적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로서 발달적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Choi, 2010)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울과 불안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심리적 문제인데(Choi, Park, Park, & Shin, 2002)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 및 불만의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는 수도권 I광역시 중산층 거주 지역 소재 공립 초등학교 한 곳에서 5학년 7개 학급과 6학년 5개 학급 아동 422명으로부터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1.4%(217명), 여자가 47.6%(201명), 무응답이 0.9%(4명)이었고,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57.8%(244명), 초등학교 6학년이 40.8%(172명), 무응답이 1.4%(6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 분포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7명)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 49.8%(210명), 전문대학 졸업이 9.5%(40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32.2%(136명), 무응답이 6.9%(29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4%(6명)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 62.3%(263명), 전문대학 졸업이 8.5%(36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8%(88명), 무응답이 6.9%(29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0.9%(4명), 어렵다 8.1%(34명), 보통이다 62.6%(264명), 넉넉하다 24.2%(102명), 매우 넉넉하다 2.6%(11명), 무응답이 1.7%(7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완벽주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을 Lee(2002)가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변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의 개인적 측면과 대인적 측면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4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척도 별 점수의 범위는 15점부터 75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척도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에서 각각 .86, .65였다.

2) 우울

아동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

Jeong(2003)의 번안을 참고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임상적인 목적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3) 불안

불안은 Reynolds와 Richmond(1978)가 제작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Choi와 Cho(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성격특성으로서의 불안인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8문항이 불안에 관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 척도로서 응답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 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나는 예민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Sim(2001)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0점부터 5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적어도 다른 아이들만큼은 가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초등학교

교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조사 승인을 받은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에서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질문지 422부 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406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Variable	M	SD
Self-oriented perfectionism	48.05	9.78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4.57	6.32
Depression	33.96	10.10
Anxiety	8.91	6.32
Self-esteem	34.84	6.68

1.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과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r = -.16, p < .01$)를 보였고, 불안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r = .36, p < .01$)를 나타내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 정도에 따라 불안 수준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과 각각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r = .33, p < .01; r = .38, p < .01$)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r = -.26, p < .01$)를 보였다. 즉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불

Table 2.
Correlation among self-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16**	-.07	.36**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3**	.38**	-.26**

** $p < .01$

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간의 상관관계는 $r = .32(p < .01)$ 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고,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분석 3단계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에 따라 매개효과가 부분매개인지, 완전매개인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1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beta = .07, n.s.$), 자아존중감만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beta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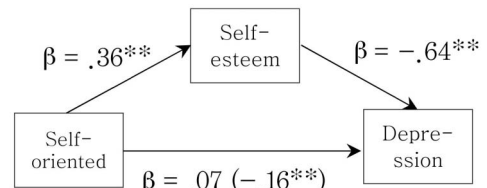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F
Step1 Depressi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17	-.16	-3.40**	.03	11.54**
Step2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25	.36	7.94**	.13	62.99**
Step3 Depressi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07	.07	1.62	.38	128.50**
Self-esteem	-.96	-.64	-15.46**		

** $p < .01$

.64,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매개변수의 영향력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자아존중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예측하는데 이 관계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앞서 기술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3,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에서는 자가지향 완벽주의($\beta = .18, p < .01$)와 자아존중감($\beta = -.57, p < .01$) 모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므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을 예측하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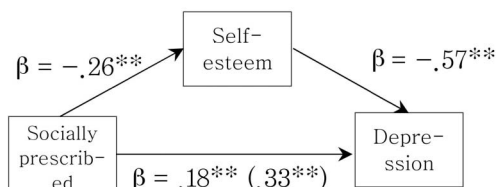
3. 아동의 자가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마찬가지로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F
Depress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52	.33	7.06**	.11	49.77**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6	-5.51**	.07	30.33**
Depress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9	.18	4.57**	.41	143.17**
Self-esteem	-.86	-.57	-14.55**		

** $p < .01$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았다. 분석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로 자가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불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 n.s.$). 그러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므로 (Kenny, Kashy, & Bolger, 1998)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

분석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지향 완벽주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에서는 자가지향 완벽주의($\beta = .13, p < .01$)와 자아존중감($\beta = -.57, p < .01$) 모두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므로 자아존중감은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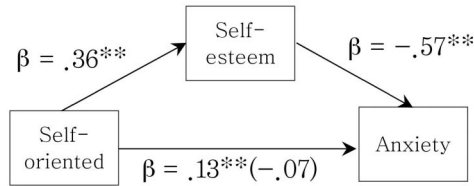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nxiety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F
Anxiety					
Self-oriented perfectionism	-.05	-.07	-1.51	.01	2.29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25	.36	7.94**	.13	62.99**
Anxiety					
Self-oriented perfectionism	.09	.13	3.00**	.29	85.24**
Self-esteem	-.54	-.57	-12.93**		

** $p < .01$

매개효과가 있는데도 1단계 분석에서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불일치 매개 모형 (inconsistent mediation model)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비슷하며 각각 반대 부호를 지니는 경우에서로서의 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총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1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nx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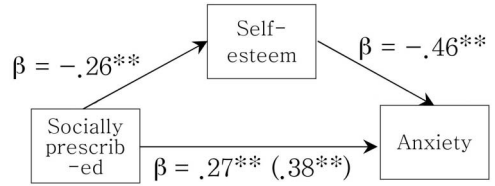
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8,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beta = .27, p < .01$)와 자아존중감($\beta = -.46, p < .01$) 모두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분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므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사회부와 완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F
Step1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8	.38	8.50**	.15	72.27**
Step2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6	-5.51**	.07	30.33**
Step3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7	6.45**	.34	107.68**
Self-esteem	-.43	-.46	-11.06**		

** $p < .01$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벽주의는 불안을 예측하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4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완벽주의 두 차원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및 자아존중감과 다른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완벽주의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관점(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대체로 적응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의 차원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일부 선행연구들(Aldea & Rice, 2006; Kim & Son, 2006; O'Connor et al., 2007)과는 일관되지만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Hewitt et al., 2002)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높은 성취동기, 성실성, 책임감 등의 적응적 측면과 과도한 자기비판이나 비현실

적인 수준의 자기 기대와 같은 부적응적 측면이 모두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다르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Rice, Leever, Noggle, & Lapsley, 2007)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기지방 완벽주의와 불안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들(Blankstein & Dunkley, 2002; Miquelon et al., 2005)의 보고와 일관되지만 자기지방 완벽주의와 불안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ang, Sanna, Chang, & Bodem, 2008; Shafran & Mansell, 2001)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자기지방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일치 매개 모형을 이루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독립변수인 자기지방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불안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총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 결과인 것(MacKinnon et al., 2007)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지방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자기지방 완벽주의에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 설정뿐만 아니라 성취동기, 성실성, 끈기, 책임감과 같은 측면도 있어서 성취수준이 높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Ashby & Rice, 2002; Bieling et al., 2004)의 보고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자기비판 성향이 지나치지 않다면(Stoeber, Hutchfield, & Wood, 2008) 자기지방 완벽주의는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지방 완벽주의와 달리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난 것은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hang et al., 2008; Lee & Rhyu, 2002)과 일관된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주된 특성이다(Campbell & Di Paula, 2002). 따라서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무능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Lee & Rhyu, 2002). 이처럼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Calvete & Cardenoso, 2005; Wu & Wei, 2008).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비현실적 믿음에 의해 실패에 따른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더 크게 경험하므로(Tangney, 2002)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아존중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부와 완벽주의에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간의 차이에 대해 빈번히 생각하는 특성도 있으므로(O'Connor et al., 2007)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대체로 어렵게 되고 결국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지방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방 완벽주의는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자기지방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자기지방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이 포부수준과 자기효능감이 높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toeber, Kempe, & Keogh, 2008)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자기지방 완벽주의의 긍정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도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알아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우울 경험 정도를 증가시키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해석된다. 이 결과는 사회부와 완벽주의의 핵심 특성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설정된 높은 기준에 자신이 맞추어야 하며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의 요구에 맞추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억압하는 특성을 보이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갈등에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자아가 약화될 수 있다(Flett, Besser, Hewitt, & Davis,

2007). 또한 완벽한 기준에 맞는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의 자신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의식하면서 열등감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쉽다(O'Connor et al., 2007). 이처럼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Wu & Wei, 2008) 타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받는 부정적 평가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이 타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 우울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불안 수준을 높이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불안 수준을 낮추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이처럼 불일치 매개모형을 이루는 것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자신의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과 완벽함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Campbell & Di Paula, 2002)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완벽함을 위한 노력은 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자아존중감, 목표지향 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자신의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이와 반대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어도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행동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동기, 정서, 인지적 과정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연구(Bergman, Nyland, & Burns, 2007)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긍정적 동기로서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과 부정적 동기로서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행동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불안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경직된 사고를 하게 만들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도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주어진 기준이 타인에 의해 설정되어 있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취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게 되므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완벽하게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인정에 대한 믿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므로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또한 실패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하고(Yoon & Kim, 2008), 성취보다는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기도 한다. 즉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보다는 회피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Park et al., 2008) 결국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일 수 없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이에 따라 불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우울 및 불안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통해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거쳐 우울 및 불안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완벽해야 하는 주체가 아동 자신이므로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모두 자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듯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 지표들과 관련되므로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가 연구에 따라 정적 또는 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기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둘째,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와 완벽주의에 각각 하위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부 하위차원까지 측정하여 살펴보지는 못 하였다. 셋째,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다는 청소년 이상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참고문헌 고찰 시 아동 대상 연구만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못했다. 넷째, 완벽주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은 각각 성차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까지 다루지는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각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완벽주의가 아동의 심리적 문제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완벽주의가 작용하는 경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 되어 이들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완벽주의와 아동의 심리적 문제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 불안 관련 요인으로서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와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자아존중감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에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시사하는 점은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Enns, Cox, & Clara, 2002; Pyo & Ahn, 2006; Yoo, Ha, & Kim, 2004)에서도 제 안한 바와 같이, 아동이 순수한 성취동기를 길러 자신이 목표한 바에 도달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치감을 지닐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심리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ldea, M. A., & Rice, K. G. (2006).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98-510.

Ashby, J. S., & Rice, K. G. (2002). Perfectionism,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2), 197-184.

Baek, H.-J., & Hwang, H.-J. (2006).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1-2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rgman, A. J., Nyland, J. E., & Burns, L. R. (2007). Correlates with perfectionism and the utility of a dual process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2), 389-399.

Bieling, P. J., Israeli, A. L., & Antony, M. M. (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 A. E. R., Huijding, J., Muris, P., Vogel, L. R. R., & Biesheuvel, J. (2010). Global, contingent and implicit self-esteem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311-316.

Calvete, E., & Cardenoso, O. (2005). Gender differences in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2), 179-192.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81-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ang, E. C., Sanna, L. J., Chang, R., & Bodem, M. R. (2008). A preliminary look at loneliness as a 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in

- college students: Does being lonely make perfectionistic strivings more distress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877-886.
- Choi, H-W. (2010). The prevalence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depressive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unahn, Korea.
- Choi, J-S., & Cho, S-C. (1990).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3), 691-701.
- Choi, M-S., Yoo, J-M., & Hyun, M-H. (2005).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1), 1-15.
- Choi, Y-H., Park, Y-Y., Park, I-J., & Shin, M-S. (2002).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2), 203-214.
- Courtney, E. A., Gamboz, J., & Johnson, J. G. (2008). Problematic eating behaviors in adolescents with low self-esteem and elevated depressive symptoms. *Eating Behaviors*, 9(4), 408-414.
- Cox, B. J., Enns, M. W., & Clara, I. P. (2002).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erfectionism in clinically distressed and college student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14(3), 365-373.
- Egan, S. J., Wade, T. D., & Shafran, R. (2011). Perfectionism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A clin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31(2), 203-212.
- Enns, M. W., Cox, B. J., & Clara, I.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6), 921-935.
- Flett, G. L., Besser, A., Hewitt, P. L., & Davis, R. A. (2007). Perfectionism, silencing the self,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11-1222.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Caelian, C. F., Flett, G. L., Sherry, S. B., Collins, L., & Flynn, C. A.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6), 1049-106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55-2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R. W., McIntire, K., & Bacharach, V. R. (1997). Perfectionism and the big five facto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257-270.
- Hong, G., Kim, B, Cho, S., Ahn, D., Lim, T., & Chung, C. (2005). Korean textbook of child psychiatry. Seoul: JDM.
- Jeong, A. (2003).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of urban children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4th ed., pp. 233-265).
- Kil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 Development*, 46, 141-156.
- Kim, H., & Son, D.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345-361.
- Kim, J-H., & Park, K-J. (2010). The Influence of the Need for Peer Approval upon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as a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83-99.
- Kim, J-M. (2010). The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8), 79-104.
- Kim, Y., & Seo, S. (2008). A review of perfectionism: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581-613.
- Lee, A., & Hankin, B. L. (2009).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redicting prosp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2), 219-231.
- Lee, C-H., Chung, J-S., Rhee, M-K. (2009). The Influence of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433-448.
- Lee, E-J. (2002). Impact of Attachment Stability and Perfectionism of late childhood on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Y. (2011).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parents'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H., & Rhyu, J-H. (2002).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erfectionism - in relations with achievement go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293-316.
- MacKinnon, D. P., Fairchild, A. J., & Fritz, M. S. (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614.
- Mazza, J. J., Abbott, R. D., Fleming, C. B., Huarache, T. W., Cortes, R. C., Park, J., et al. (2008).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A 7-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0), 1-29.
- Miquelon, P., Vallerand, R. J., Grouzet, F. M. E., & Cardinal, G. (2005). Perfectionism, academic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7), 913-924.
- O'Connor, D. B., O'Connor, R. C., & Marshall, R. (2007).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Evidence of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4), 429-452.
- Park, H., Heppner, P. P., & Lee, D. (2010).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4), 469-474.
- Pyo, K-S., & Ahn, D-H. (2006).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2), 211-227.
- Rao, U., Ryan, N. D., Birmaher, B., Dahl, R. E., Williamson, D. E., Kaufman, J., et al. (1995). Unipolar depression in adolescents: clinical outcome in adulthood.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5), 566-578.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2), 271-280.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04-314
- Rice, K. G., Leever, B. A., Noggle, C. A., & Lapsley, D. K. (2007).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 44(2), 139-15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2005). 2005 Report on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 Shafr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hin, D-Y.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Elementary Student's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 The Role of Dysfunctional Perfect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Sim, H-O. (1998). Depression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Relationship with daily hassle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6), 133-144.
- Sim, S-W. (2001).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toeber, J., Hutchfield, J., & Wood, K. V. (2008).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aspiration level: differential effects of perfectionistic striving and self-criticism after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4), 323-327.
- Stoeber, J., Kempe, T., & Keogh. E. J. (2008). Facets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elings of pride, shame, and guilt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06-1516.
- Tangney, J. R. (2002). Perfectionism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99-2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L. M.,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68-377.
- Wu, T.,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276-288.
- Yoo, M-S., Ha, E-H., & Kim, H-J. (2004). Developmental analysis of perfectionism-in parents' attitud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nd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425-444.
- Yoon, J-M., & Kim, J-M. (2008).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fectionism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863-883.

접 수 일 : 2011년 10월 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18일